

목포시, 공영버스 3개 권역 위탁사업자 3곳 선정

금호익스프레스·마창여객·신흥운수...4개 권역 중 1곳은 직영 가격·정량·정성평가 후 세부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

목포시가 최근 시내버스 민간위탁 사업에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공영버스 위탁사업' 협상대상자 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목포시의 공영버스는 4개 권역으로 구분해 1개 권역은 목포시에서 직영하고, 나머지 3개 사업권역은 민간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영버스 민간위탁사업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순위별로 금호익스프레스(주), 마창여객(주), 신흥운수이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사업 참여자들이 추천해 관련분야 연구원·교수 등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차량 배차, 서비스 개선, 종사자 관리, 운송비용 절감 방안 등 사업수행 능력을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평가했다.

또 사업자 입찰가격(운송원가)과 재무건전성, 사업규모 등 경영관리지표인 정량평가를 반영해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앞으로 1순위로 선정된 사업자(금호익스프레스)와 사업 신청 시 희망했던 사업권역을 우선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남은 2개의 사업권역에 대해 각각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위탁사업권역은 차고지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1사업권역(해양대 차고지)은 북항·원도심·하당·육암지구를 연결하는 간선 1번과 2번 노선, 2사업권역(석현동 차고지)은 순환노선과 지선노선, 3사업권역(삼학도 차고지)은 무안·영암 등 시

계외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하게 되며 현행 전면 개편된 노선으로 운행하게 된다.

시는 선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업 시행 조건, 운송비용 등 운영방식에 대한 세부 협상을 거쳐 위탁 공영버스 사업자 이행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차량 등 인수인계와 운수종사자 채용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 공영버스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영버스 위탁사업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 효율화,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전국의 운송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전국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진행해 전국에서 6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구강검진 서비스.

집 앞에서 편리하게 구강검진 받으세요

해남군, 찾아가는 클리닉 운영

해남군이 지역 주민들의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찾아가는 국가 구강검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은 치과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구강검진, 스케일링, 불소 도포, 구강 보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진대상은 올해 짝수년도인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다.

해남군의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은 2022년 기

준 16.6%로 전남 18.9%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군에서는 수검률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국가 구강검진 클리닉을 운영하게 됐다. 검진 비용은 1인당 8120원으로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민들은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국가 구강검진 클리닉 일정은 해남보건소 보건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치과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가 구강검진을 통해 구강 질환을 조기 진단하고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임해 송금 김양식장.

신안군, 김양식 신규면허 축구장 600여개 규모 380ha 확보

"신규 조합원 우선 이용 방안 마련"

신안군은 축구장 600개 면적에 육박하는 신규 양식장 380ha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남지역 양식장 1655ha의 2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김양식 면허는 11월 중 예정되어 있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수확하는 잇바디돌김의 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적인 방사무늬김은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하는 시기를 고려하면 김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안군의 양식업권 대부분은 여촌계 중심으로 개발·운영되어 신규 어업자(귀어·청년 등)들이 양식업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다.

군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구별수협(신안군수협)과 협의해 지역별로 새로 유입된 어업인 중 조합원자격을 갖춘 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정부 주도하에 추진 중인 '어촌지역 활성

화 대책'에 맞춰 어촌사회의 폐쇄적인 진입장벽의 구조 개선을 통해 신규 어업자의 양식산업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존 어업인 중심의 폐쇄적인 면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김 양식 경영을 희망하고 계획 중인 모든 어가에서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양식면허 또한 해양수산부의 신규 양식장 개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마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추진

송산리서 기계화 파종 시연회

신안군은 지난 11일 자은면 송산리 농가 포장에서 마늘 재배 농업인 및 관계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 기계화 파종작업 현장 시연회를 열었다.

마늘 주산지인 신안군은 파종물 기계화 추진을 위해 2025년 마늘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으로 마늘 재배 전 과정 기계화를 단계적으로 면적 확대할 계획이다. 마늘 기계화는 파종기 형태(부착형, 자주형) 파종방법(6조-10조), 멀칭 방법(무별

칭, 칼베닐, 비닐피복) 등 재배양식이 다양한 지역에 맞는 재배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마늘 파종기 4개 제조업체가 참여해 트랙터 부착형(7조-8조), 승용관리기 부착형(7조-8조), 일관작업형 파종기(6조) 등 8종의 파종기를 현장에서 선보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파종물 기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늘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전 과정을 기계화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 등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민물장어 지역 대표 먹거리 육성

전국 3위 생산지...장어 브랜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착수

민물장어의 전국 주요 생산지 중 하나인 영암군이 민물장어 브랜드화와 지역 대표 먹거리 육성에 나선다.

영암군은 전남 지역 최초로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올해 12월까지 '영암 장어 브랜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암군의 민물장어 양식업은 허가 33개소, 면적 150,702㎡ 규모이며,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민물장어양식수협 위판 실적은 990t, 위판고는 322억원에 달한다. 이는 고창, 영광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월출산국립공원으로 대표

되는 지역의 청정환경에서 한국산 자포니카종만 생산·출하되는 영암 민물장어는 두꺼운 육질과 쫄깃한 식감으로 전국 식도락가들의 별미 음식 목록의 윗자리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다.

영암군은 앞으로 수립할 기본계획에 ▲민물장어 브랜드·네이밍 ▲포장재 디자인 기획 ▲장어·농특산물 연계 먹거리 제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름과 조리법에 청정 영암의 이미지까지 더해 소비자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김준두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영암 장어가



영암 민물장어.

지역 관광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지난 12일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열린 '2024 청소년 문화한마당 제8회 드림하이 콘테스트'를 마친 후 관계자와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문고목포시지부, '드림하이 콘테스트'

목포항구축제 청소년 문화한마당

새마을문고목포시지부는 목포시새마을회(회장 오현석)와 함께 12일 목포항구축제 주 무대에서 '2024 청소년 문화한마당 제8회 드림하이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목포시와 광주일보의 후원으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콘테스트는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표출해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과 재능발굴을 위한 미래 주역의 꿈 펼치기의 장을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콘테스트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박홍률 목포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조성우 목포시의회 의장, 정덕원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송선우 목포시 관광경제위원장을 비롯해 김귀선, 박수경 목포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방수 목포문화도시센터장, 양미란 (사)우리 춤협회 광주전남지회장, 김태영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등이 분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콘테스트는 목포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분선 11개 팀이 열린 경연을 펼쳤으며, 안부덕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의 제자인 신유빛(고수·최

건) 학생의 판소리 공연과 전년도 금상수상자인 지연수 학생과 은상 수상자인 김태은 학생이 소속된 무용팀이 한국무용 축하공연을 펼쳤다.

다음은 수상자(팀) 명단.

◇대상 (목포시장상) 김서현(전남예술고) 한국무용
◇금상 ▲국회의원상 T.PLE(선지연외)8-광주호남삼육고외) 댄스 ▲목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상 이주은(경남창원 김계중1) 보컬
◇은상 ▲목포시의회의의장상 구태은(서울정의외고) 보컬 ▲새마을문고전라남도지부회장상 뮤스카(서울송파한림예고) 밴드
◇동상 ▲목포시새마을회회장상 영인대태권도 푸르미르시범단(이창현외) 8명-목포성신고 외) 태권퍼포먼스, 더탑(목포여상고) 댄스 ▲새마을문고목포시지부회장상 Juston(이강민외)1-전남예술고) 보컬(랩), 신시나위(김석윤외)전남예술고) 밴드
◇장려상 ▲광주일보회장상 또마기(이승찬외)1-목포문태고) 밴드 ▲목포신협이사장상 박동운(목포문태고) 바이올린연주.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군 '해양치유 완도' 브랜드 선포

신우철 군수 "글로벌 치유도시 도약"

완도군이 대한민국 대표 해양치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 개발한 도시 브랜드 '해양치유 완도' (사진)를 선포했다.

브랜드 선포식은 지난 11일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신우철 군수, 김양환 완도군의회 의장, 군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는 완도군의 해양치유를

지역명과 결합한 '해양치유 완도'로, 세계 치유도시로의 미래상을 담았다.

심볼은 '완도', '글로벌', '완전함'을 상징하는 원형과 '치유'를 상징하는 섬표가 하나됨을 표현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신우철 완도군수는 미래비전 소통 강연을 통해 해양치유산업과 치유의 섬 조성 전략, 해양바이오산업, 국립난대수목원 등 국책 및 SOC 사업, 대규모 축제·행사 등 미래성



장 동력산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도시 브랜드와 연계해 해양치유 도시의 가치를 높이 자고 강조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해양치유산업의 대표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치유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해양치유 도시 완도가 글로벌 치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mg@